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을: 윤리 문제는 ' 좋음', '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 도덕규범에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갑: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을: 그렇지.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윤리학은 ㉠

- ①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해.
- ② 인접 학문 영역과는 분리된 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해.
- ③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해.
- ④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해야 해.
- ⑤ 구체적 도덕 문제에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

2.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 이행은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기업은 이익 추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기업의 어떤 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을: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다. 기업은 법과 해약 금지 원리의 준수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할 기회가 많아진다.

< 보 기 >

- ㄱ.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인가?
- ㄴ.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 ㄷ.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시장에 해로운가?
- ㄹ. 합법적 기업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쳐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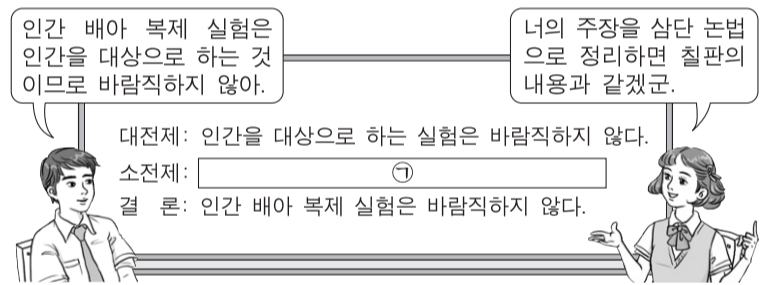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가), (나) 사상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새벽에 잠을 깨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돈한다. 마음이 세워졌으면 일어나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몸을 단속한다. 이와 같은 수양으로 덕을 닦아 인의(仁義)를 지켜 나가야 한다.
 (나) 여러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공(空)이라고 말한다.

- ① (가)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태도[慎獨]를 강조한다.
- ② (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친소(親疎)를 구별하는 사랑을 중시한다.
- ④ (가)는 삼독(三毒)의 제거를, (나)는 욕망의 절제를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를 것을 강조한다.

4.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 ③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 ④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속한다.

5.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시제(時祭)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집에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시제 전 사흘간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음식을 들으면 안 되고, 바깥출입도 자제하며, 오로지 마음속으로 시제 받으실 분의 모습만 생각하렴. 그래야만 그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정도로 정성이 지극하게 되어 시제 시에 신이 내려 오셔서 음식을 흠향하시게 되는 것이란다. ... (후략)...

- ① 남녀가 만난다는 의미로 하늘과 땅에 서약을 하는 의례이다.
- ②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成人)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우는 의례이다.
- ③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새로운 이름[字]을 부여받는 의례이다.
- ④ 모든 세대와 인간관계의 시초로서 가족이 성립하는 의례이다.
- ⑤ 생명의 근원을 확인하고 생명의 연속성을 갈망하는 의례이다.

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德)에 어긋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예(禮)에 어긋난다.
(나)	개체 생명은 가(家) 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생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 시작이다. 또한 ㉠은/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 ①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다.
- ②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
- ③ 자손을 낳아 대(代)를 잇는 것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 ④ 부모를 삼가 모시고 그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것이다.
- ⑤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완성된다.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기가 속한 종(種)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차별적 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착취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을: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 ① 갑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② 을은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동정심을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 ④ 갑, 을은 인간 이외 존재의 도덕적 지위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의 공기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제약해서도 안 돼. 정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돼.

정보는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산소통의 공기와 같은 것이야. 산소통의 공기를 쓰려면 그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정보 또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 ① 갑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정보 공유 금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p> <p>을: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強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보기>

ㄱ. A: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ㄴ. A: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 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ㄷ. B: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ㄹ. C: 사형 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을: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보기>

ㄱ. 갑은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ㄴ. 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가), (나)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과 땅은 사랑을 모르므로[不仁]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질서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聖人)도 사랑을 모르므로 백성을 질서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나)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이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을 교화[教]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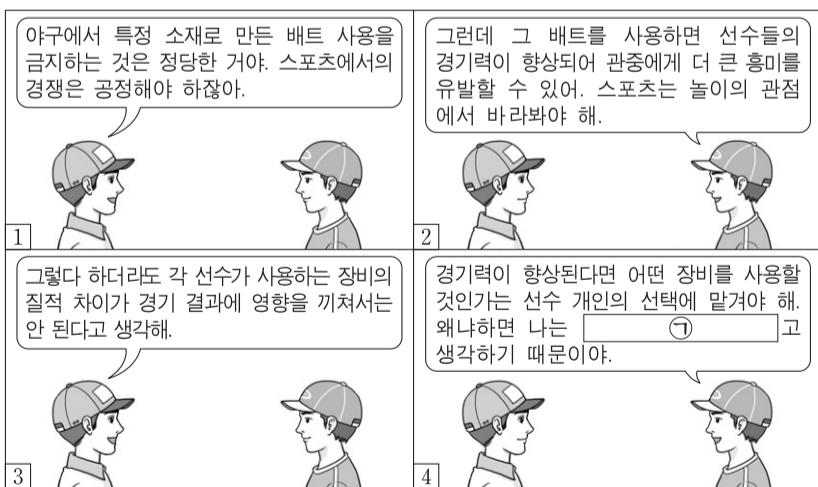
- ① (가)는 인간과 하늘을 상호 독립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나)는 자연을 필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이 목적론적 체계로 구성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인(仁)과 같은 덕의 근원이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연기적(緣起的)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어떤 나라에서 한 언론사가 정부의 외교 기밀을 폭로한 기사를 연재했다. 이에 정부는 그 기사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도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정부가 진실을 감추거나 국민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란 점을 근거로 보도를 허용하였다. 이 판결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보 공개 기준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권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이 바로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언론은 ㉠ …(후략)…

- ①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 ④ 국익 관련 정보 보도에 언론의 자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3.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포츠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② 스포츠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 ③ 신체적인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 스포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 ④ 개인의 노력 이외의 것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⑤ 경기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불공정 경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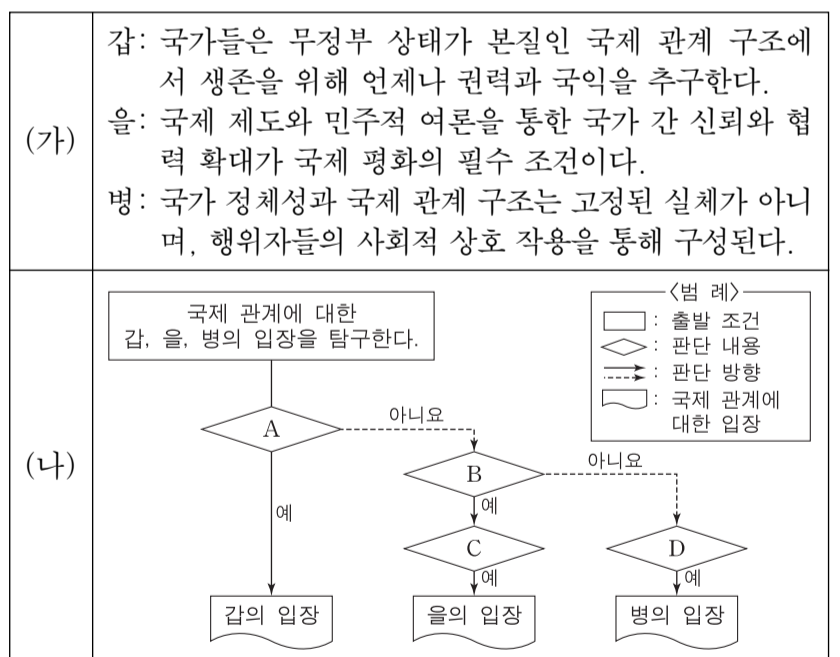
14.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지의 고양에 의해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 <보기> —
 ㄱ.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무시한다.
 ㄴ.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에 모순이 지속됨을 간과한다.
 ㄷ.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동일함을 간과한다.
 ㄹ.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사회 부정의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국가를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는가?
 ㄴ. B: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안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인가?
 ㄷ. C: 국제 관계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수립이 가능한가?
 ㄹ. D: 행위자의 관점에 따라 국익의 내용이 변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 사상가의 예술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아름다움[美]은 대상의 완전함,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 진리[眞]가 완전하듯이 미 역시 완전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좋음[善]을 뜻한다. 한편,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다. …(중략)… 예술가들로 하여금 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게 하고 시민이 이런 작품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품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 ①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아름다움이 무질서한 대상에도 존재한다고 본다.
- ③ 예술은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 ④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가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난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민족은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등장한 '상상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
 을: 그렇지 않아. 민족은 고대 이래 혈연, 언어를 공유하는 실체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
 갑: 민족은 혈연이나 언어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지에 기초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민족은 '매일 매일의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유도 가능해.
 을: 민족은 대대로 이어진 원초적 유대로 결속된 집단이야. 그래서 개인이 자기 의지대로 민족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 ① 민족은 언제부터 어떤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가?
- ② 민족이 등장한 근대 이후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 ③ 민족의 구성 요소는 근대화 과정에서 왜 변화하였는가?
- ④ 민족 구성원의 의지는 원초적 유대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 ⑤ 민족 형성이 민주주의 발전과 병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8.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임금은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민(民)에 의존한다. 민은 국가의 근본이고 임금의 하늘이다. 민은 의식(衣食)이 충족되어야 예의를 알게 되니 대업은 이를 기반으로 한다.

(나)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국민은 정치권력 구성과 공공 문제 결정의 주체로서,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정치적 권한과 기회를 가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갑, 을이 <사례> 속 A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을: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

<사 례>

A국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속세율과 비례적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예산을 증대하였다.

<보 기>

- ㉠.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 ㉡.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므로 지지한다.
- ㉢.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지지한다.
- ㉣.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을 부정하므로 반대한다.

- | | | | | | | | | | |
|---|---|---|--|---|---|--|---|---|---|
| | 갑 | 을 | | 갑 | 을 | | 갑 | 을 | |
| ① | ㉠ | ㉡ | | ㉠ | ㉢ | | ③ | ㉡ | ㉣ |
| ④ | ㉡ | ㉣ | | ㉢ | ㉣ | | | | |

2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과학은 사회적 적용을 전제로 한다. 과학은 연구 활동 및 그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된다.
 을: 과학은 과학적 진리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과학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 학생 답안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과학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보며, ㉡ 을은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 갑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규범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 갑,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그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정답표
(생활과 윤리)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6	②	3	11	④	2	16	①	3
2	③	2	7	②	3	12	③	2	17	①	2
3	④	2	8	③	2	13	①	2	18	②	3
4	②	3	9	③	3	14	④	3	19	①	3
5	⑤	2	10	③	3	15	④	3	20	⑤	2